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기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달 30일 신규 명칭 선포식을 가졌다.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약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명칭 변경 선포

바이오·식품산업 중추 역할 수행 포석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기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달 30일 신규 명칭 선포식을 가졌다.

이는 단순히 명칭 변경이 아니라 격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한국판 뉴딜과 글로벌 관심사인 그린바이오 생태계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식품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바이오진흥원은 도내 바이오식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에 농생명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창업 및 유망기업의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화

를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지역내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전북형 뉴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수 원장은 "이번 명칭 변경에는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북의 농생명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그린바이오 신산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국책사업 발굴과 도내 유망 바이오식품 기업의 기술 혁신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열의가 담겨있다"며 "지역내 바이오·식품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유가공업체 제품 안전성·경쟁력 키운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임실엔치즈클러스터, HACCP 지원 협약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이사장 임실군수 심민)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인증원) 광주지원은 최근 임실엔치즈 유동센터에서 HACCP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임실군 유가공업체의 제품 안전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최낙진 사업단장, 인증원 홍성삼 광주지원장을 비롯한 임실군 관내 목장형 유가공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사업단과 인증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14개 유가공업체의 과학화 검증 기술지원, 유가공 맞춤형 중요관리점(CCP) 유효성 평가 지원 등 HACCP 의무적용 도입을 위한 지원과 상호 간 홍보 활동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낙진 사업단장은 "인증원의 HACCP 지원을 통한 관내 유가공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상호 교류가 지속될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성삼 광주지원장은 "유가공업체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도, 올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옵토웰·데크카본·제이아이테크·참고올 등 6곳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전북도 대표 유망 수출중소기업 6개사를 202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 강소기업 6개사는 (주)옵토웰, (주)데크카본, (주)제이아이테크, (주)참고올, 농업화학인(주)한우물, (주)진우에스엠에이다. 이들 기업은 탄소, 자동차, 식품, 반도체 산업에 속한 기업으로, 전북도 지역산업 특화 분야와 연계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실적이 55.7% 성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선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은 '도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

체계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4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가 연계해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4년간 기업당 최대 2억원)을 통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활용해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사업 우대 선정을 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강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북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우리 인삼 신선도 유지기술, 베트남서 '호평'

수삼·새싹삼에 적용... 신선도 유지기간 3~4일 연장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수출용 인삼의 이미지(인상) 향상을 위해 수삼과 새싹삼에 신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해 베트남에 시범 수출한 결과,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최근 동남아시아 나라로부터 한국산 인삼 수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2019년 인삼류 수출액이 전년 대비 38.9% 증가하는 등 한국 인삼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수출액 중 대부분은 홍삼류가 차지하며, 수삼 비중은 9%대에 머무르고 있다. 현지에서는 수삼 수출이 증대되기를 원하지만, 항공 운송료 부담과 유통 방법의 문제로 수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선박 수출용 수확 후 관리 신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해 수삼과 새싹삼의 시범 수출을 추진했다. 신선도 유지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고압 분사식 세척 방법으로 인삼을 씻은 뒤 표면을 말리는 기술 ▲기능성(MA) 포장재에 담아 부패와 품질 저하를 늦추는 기술 등이다. 수삼에는 두 가지 모두를, 새싹삼에는 기능성 포장재 기술을 적용했다. 고압 분사식 세척 후 표면을 말려주면 수삼의 뿌리 표면에 묻어있는 흙과



베트남 현지바이어의 수출인삼 평가 모습.

부패 미생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또한, 수삼보다 신선도 유지가 어려운 새싹삼은 기능성(MA) 포장재에 담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22.9% 보존할 수 있고 호흡을 억제해 신선도 유지 기간을 3~4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3월 28일 부산에서 선적돼 4월 1일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한 세척 수삼과 새싹삼은 현지 업체와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현지에서 주로 조리용이나 술에 담가 선물용으로 이용하는 한국 수삼은 재래시장에서 3일 만에 50kg 전량이 판매됐다. 또한, 소량이지만

처음 시범 수출한 새싹삼은 현지 업체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대량 수출을 위한 절차를 협의 중이다.

현지 소비자들은 "세척 수삼이 기존 수삼과 달리 외관이 청결해보이고 품질이 우수해 가정용이나 선물용으로 활용하기 간편하다"라고 평가했다. 베트남 인삼수출업체 임만석 대표는 "앞으로는 베트남 소비자가 선호하는 난발삼도 신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해 수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수출을 통해 위축된 한국산 인삼 시장을 회복하고자 자체 확립한 인삼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 수출품목에 포함되지 못했던 새싹삼과 같은 새로운 유망 품목을 소개해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5개월 이상 저장된 수삼의 선박 수출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산 인삼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훈연포 저장유통과장은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인삼의 우수한 품질을 알릴 수 있도록 신선도 유지 기술을 보급하고, 국산 인삼류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 ESG

경영 강화 실천의지 다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지난달 30일 서울 핀란드타워에서 개최된 '제18회 윤경 CEO 서약식'에서 지속가능한 혁신과 ESG 경영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윤경 ESG 포럼이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정부, 공공기관, 학계 등 관계자가 참석해 ESG와 지속가능 경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사는 이날 함께 개최된 제1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에서 윤리경영을 위한 대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노력을 인정받아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지현 사장은 "ESG 실천과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는 인삼경영으로 국민에게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드리겠다"며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2021년 NEW All(올)·바로 KESCO 윤리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전 분야 윤리위시 내재화를 통해 대내외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5월 전북 중기 경기전망 3개월 연속 상승

경기전망지수 72.1로 전월대비 1.9p ↑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승찬)가 지난 4월 15일부터 22일 까지 전북지역 소재 1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5월 전북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북지역의 5월 경기전망지수(SBI)는 72.1로 전월대비 1.9p 상승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기대감과 제조업 중심의 생산증가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84.2로 전월 대비 3.8p 상승, 전년동월대비 7.1p 상승했고, 비제조업은 56.3으로 전월 대비 0.7p 하락, 전년동월대비 31.2p 하락해 업종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내수판매(68.7→

72.5), 자금사정(67.2→68.2)에서 상승했고, 수출(100.0→88.9), 영업이익(67.2→66.3), 고용수준(88.7→89.1)에서 전월대비 하락했다.

4월 중소기업의 경영여로 응답을 살펴보면, '내수부진'(62.8%), '인건비 상승'(45.7%), '원자재 가격상승'(38.0%), '자금조달 곤란'(30.2%), 업체간 과당경쟁'(24.0%), 인력확보곤란'(24.0%)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기자

안전보건경영 노·사 '맞손'

LX노·사 공동성언문 발표·협약

LX한국국토정보공사 노·사가 안전보건 경영방향을 본격화하기 위한 노사공동안전 협약을 맺었다.

LX 김정렬 사업장과 LX노동조합 정광희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본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노사간 안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안전보건경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노·사는 안전보건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해 현장중심 사고예방 대책마련과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LX 김정렬 사업장은 "안전보건경영은 노사 모두의 공동된 의지인 만큼 직원들의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X노동조합 정광희 위원장은 "안전보건 패러다임 변화에 노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LX 김정렬 사업장(왼쪽)과 LX노동조합 정광희 위원장이 노사공동안전 협약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전북본부,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 반사스티커 전달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경섭, 위원장 최홍철)는 농번기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스티커 3,000장을 제작해 최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전달했다.

전북본부는 익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과 함께 합열을 일대에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및 익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윤상기자

올 지역 자율형 수출bauer 참여기업 모집

전북중기청, 오늘부터 21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5월 3일부터 21일까지 내수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모든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1년 지역 자율형 수출bauer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 자율형 수출bauer' 사업은 기존 수출bauer 사업과 동일한 형태이나 전북지역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위기 지역(군산)·위기 업종(조선·자동차)을 우선 지원하며, 10~15개사 내외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는 '수출bauer'에서 해외진

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비를 기업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급한다.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전략·홍보·전시회·규적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북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2020년) 직접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의 내수 및 수출기업이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위기지역(군산)에 본점, 지점, 공장 중 1개 이상 보유한 기업과 위기업종(조선·자동차)에 총 3억원 중 2억원을 우선 배정한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지역 대학과

'탄소중립 숲' 만들기 행사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역대학인 전북대 및 전남대와 탄소중립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9일과 29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을 함께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나무심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된 것이다.

19일에는 서부지방산림청과 전북대학교 30여명이 참석해 전주시민의 휴식공간인 건지산 일원에 편백나무 100여 그루를 심었으며, 29일에는 전남대학교 대학로 20여명과 교내에 편백나무 대묘 100여그루를 심어 학생들에게 탄소중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용활엽수 원목 공개매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국립에서 생산한 유용활엽수(8종 299개)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 분시스팀(온비드)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산지 목재유통체계 개선사업의 하나로, 기존 대량으로 매각하던 방법에서 수종별 소규모 매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목재공방의 재료비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매각 원목은 느릅나무 1.44m(30개), 밤나무 2.01m(36개), 서어나무 2.03m(38개), 아까시나무 3.07m(67개), 가죽나무 0.47m(8개), 산뽕나무 3.80m(64개), 곶감나무 2.01m(33개), 뽕나무 1.10m(23개)으로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목재유통센터(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238-2, 남원양묘사업소 내)에 집계돼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